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會本

<동성고 윤명준 투수>

“무등기는 우리 것”

광주 동성고-서울 장충고 오늘 대망의 결승

■ 동성고

6년만에 4번째 정상 도전

제 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 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의 폐권은 '야구명문' 광주 동성고와 '서울강호' 장충고의 대결로 가려지게 됐다.

동성고는 17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4회 무등기 준결승전에서 '전통의 라이벌' 광주일고를 4-3으로 완파, 지난 2001년 8회 대회 이후 6년만에 팀 통산 4번째 무등기 탈환을 노리게 됐다.

이어 열린 경기에선 44년의 창단 역사를 자랑하는 장충고가 서울중앙고를 5-1로 누르고 결승에 합류, 무등기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동성고	200 020 000 - 4
광주일고	001 100 001 - 3

전통의 라이벌전 답게 쫓고 쫓기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동성고는 1회 선두타자 윤효섭의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와 윤도경의 중전안타로 선취점을 뽑아



<대회 7일째>

낸 뒤 계속된 2사 2루 상황에서 이상원의 3루타로 1점을 추가했다.

이에맞선 광주일고는 3회 서건창의 볼넷과 조성진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든 2사 1, 2루서 4번타자 한희준의 좌전안타와 상대 수비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고, 4회에는 1사 후 이철우의 2루타와 강민국의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1점을 보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동성고의 승부근성은 끈질겼다.

동성고는 5회 선두타자 임익현의 중전안타와 희생번트로 1사 2루를 만든 뒤 윤효섭의 좌익수 키를 훌쩍 넘기는 3루타로 1점을 추가했고, 이어 문선재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더 달아냈다.

광주일고는 9회말 2사 1루서 허경민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추격한 뒤 계속된 공격에서 만루찬스를 잡았으나, 윤여운이 삼진으로 돌아서며 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 장충고

막강 타선으로 첫 우승 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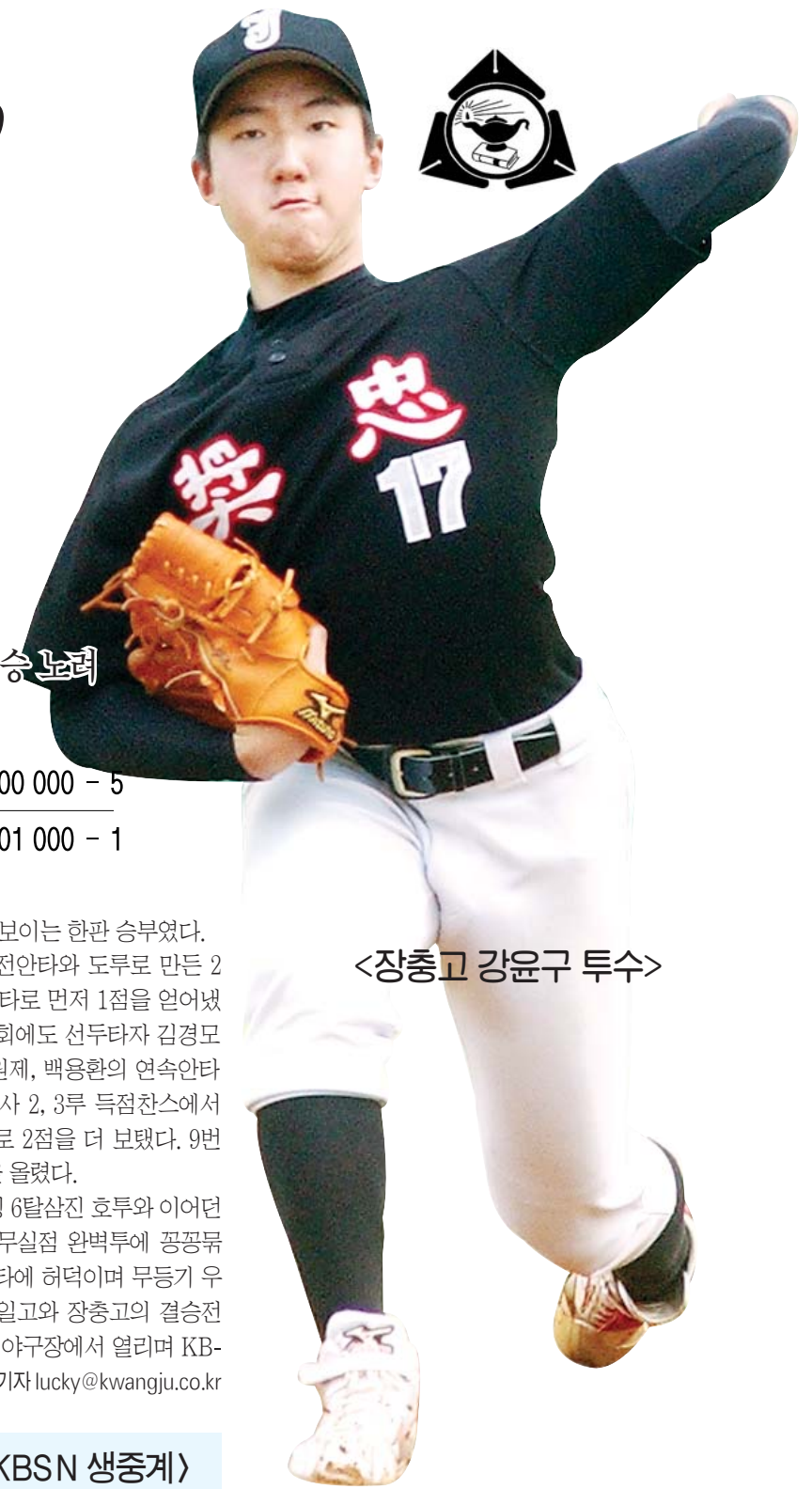
장충고	100 400 000 - 5
중앙고	000 001 000 - 1

장충고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한판 승부였다.

장충고는 1회 김경모의 좌전안타와 도루로 만든 2사 2루서 최원제의 우전 적시타로 먼저 1점을 얻어냈다. 장충고는 1-0으로 앞선 4회에도 선두타자 김경모가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최원제, 백용환의 연속안타로 1점을 추가했고, 계속된 1사 2, 3루 득점찬스에서 김진철의 주자 싸움이 2루타로 2점을 더 보탤다. 9번 신동진도 내야안타로 1타점을 올렸다.

장충고 선발 강윤구의 5이닝 6탈삼진 호투와 이어던진 최원제의 4이닝 7탈삼진, 무실점 완벽투에 공공묘인 중앙고 타선은 4안타의 빈타에 허덕이며 무등기 우승의 꿈을 접었다. 한편 광주일고와 장충고의 결승전은 18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며 KBSN에서 생중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결승전 오후 1시 KBSN 생중계>



<장충고 강윤구 투수>

■ 윤여국 동성고 감독

“투·타 기력 회복 충분히 승산 있다”



상대팀 장충고는 무엇보다 투수력이 뛰어나고 수비·공격 등에서 만만하지 않은 팀이다.

하지만 우리팀은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전력을 최대한 끌어 올렸고 팀 에이스인 윤명준 투수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전력투구가 가능하다.

예선전에 부진했던 타선은 준결승에서 광주제일고의 정찬현 투수를 상대로 4점을 뽑으며 자신감을 찾았다.

긴장하지 않고 경기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승산 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승기를 거머쥐도록 하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장충고-중앙고 경기. 1회초 좌전안타로 진루한 장충고 김경모가 최원제 타석때 2루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유영준 장충고 감독

“결승 부담없이 선수들 믿겠다”



선수들이 안정된 모습으로 경기를 뛰어나고 큰 무리 없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동성고는 야구 실력과 전통을 갖춘 팀인데다 홈팀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쉬운 상대는 아니다.

하지만 작년 대통령배 결승에서 동성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 팀의 전력도 뛰어나고 선수들의 사기도 높다.

이번 대회에서 호투하고 있는 박민석 선수를 선발로 앞세워 우승을 노리겠다. 결승이라는 부담없이 평소같이 선수들을 믿고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히어로

4타수 2안타 동성고 윤 효 섭

“팀 우승위해 최선 다할터”

“이제 시작입니다. 무등기 결승전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동성고 1번타자 윤효섭(2년·외야수)은 17일 광주제일고와의 무등기 준결승에서 4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2득점을 올리며 팀을 결승으로 견인했다.

윤효섭은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에이스 정찬현을 상대로 좌익수 옆을 흐르는 2루타로 공격의 포문을 연 뒤 동료 윤도경의 중전안타때 홈을 밟았다. 2-2로



할 정도로 빠른발과 넓은 수비 공간을 커버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윤효섭은 “무등기 대회 우승이 첫 번째 목표고, 연고 구단인 KIA에 입단해 한국 최고의 타자가 되는 게 마지막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평평히 맞선 5회에는 1사 1루서 좌중간을 꿰뚫는 3루타로 1점을 보냈고, 문선재의 좌전안타때 또 다시 추가점을 올렸다.

화순초고 5학년때 야구에 입문한 윤효섭은 동성중과 동성고를 거치면서 1번 좌타자로 활약중인 데 100m를 11초에 주파

■ 16일 경기

광주일고	002 002 000 - 4
제물포고	000 001 002 - 3
유신고	010 200 000 - 3
동성고	001 300 03x - 7
청주기공	000 300 0xx - 3
중앙고	113 003 2xx - 10
상원고	000 000 0 - 0
장충고	001 150 x - 7

프로야구 사이클링 히트 1호 대구 상원고 오대석 감독

“제자가 노히트 노런 기백”

“사이클링 히트와 노히트 노런이라는 대가목의 현장에 설 수 있다는 것에 야구인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대석(47) 대구 상원고 감독이 지난 15일 제주 관광산업고와의 경기를 앞두고 무등기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1982년 삼성 선수로 활약하던 오감독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프로야구 최초의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선수. 지난 13일 경기에서 안산공고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김민석 선수는 오감독이 이끄는 대구



상원고의 에이스다. 오감독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날은 1982년 6월 12일, 김민석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날은 2007년 6월 13일로 두 기록이 나온 날짜가 비슷해 오감독은 무등기 내내 여기저기 축하 인사를 받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감독은 다양한 모습으로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의 미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인성을 갖춘 선수가 야구인으로 대성할 수 있다고 지도자로서의 신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